

Maison

marie claire

2023 MARCH
WWW.MAISONKOREA.COM

FOCUS
MAISON&OBJET
PARIS 2023

COVER STORY
매직 서커스 에디션 대표
마리-리즈의 집

INSPIRATION
JOYFUL GUCCI LAND

FLOWER
봄을 알리는 네 가지 어레인지먼트

CAR
페라리, 데이토나 24 레이스

INTERVIEW
홍승혜
무라카미 다카시
조 나가사카
루크 에드워드 홀

KITCHEN TREND

프리미엄 주방 가구 브랜드 베스트 7

정가 8,000원



Mise en Seine

센 강이 보이는 아르데코 건물 5층에 자리한 안-샤를로트와 로랑의 듀플렉스 하우스.
세심하게 장식한 이곳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가득하다.

EDITOR 엘렌 푸아에르 Elen Pouhaer PHOTOGRAPHER 안 데레 Yann Deret



“실내 건축가 니콜라 가조에게 이 집은
로프트 감성을 지니고 있으며 큰 창으로
들어온 빛이 공간을 물들이죠.”

오랫동안 뇌이-쉬르-센 Neuilly-sur-Seine에서 거주한 안-샤를로트와 로랑은 집을 구입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원래 살던 동네에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했다. 로랑은 우연히 아르데코 건물에 자리한 듀플렉스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철 세공 장식과 멋진 스테인드글라스를 간직한 이 건물은 역사적인 건축물로 특별 지정된 곳이었다. 부부는 높은 유리창 덕분에 빛으로 물드는 이 ‘보석’의 희귀성을 바로 알아보고 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 원래 살던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발 빠른 행동은 성공을 가져다주었다. 이 집은 센 강과 뤼트 섬의 공원이 보이는 멋진 뷰를 자랑한다. 부부의 친구이자 실내 건축가인 니콜라 가조가 그들을 도와 리노베이션하고 공간을 재배치했다. 벽을 허물어 큰 공간을 마련하고 부엌과 다이닝룸, 거실을 합쳐놓았다. 오랫동안 출판사의 데코 분야에서 일한 안-

샤를로트에게는 130㎡의 새집을 꾸미는 일은 아주 쉽게 느껴졌다. “잡지에서 모든 기사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어요. 특히 떡갈나무 각목을 사용해 데커레이션에 특징을 부여하면서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담백한 공간에 활기를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컬러를 더했어요. 거실에는 짙은 녹색으로 생동감을 주고, 부부 침실에는 코냑 톤으로 아늑한 느낌을 부여했어요.” 조각가 클로드 랄랑 Claude Lalanne의 작업을 좋아하는 로랑은 부엌에 금빛 파사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부부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물건으로 집 안 곳곳을 장식했다. 안-샤를로트의 할머니에게 물려 받은 무라노 유리 카라페, 로랑의 부모님이 결혼 선물로 주신 바게 Bagues 조명 그리고 그의 증조부가 그린 수수께끼 같은 그림 등이 그런 물건이다. “우리를 닮은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집은 매우 성공적이에요!” **m**

“학생 때 제게 이 그림을
선물했어요. 그림을 보고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니콜라는 거실과 부엌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고 공간감을 주기 위해 유리 파티션을 세웠다. 계단 아래에는 장인이 옷칠한 판을 더해 깊이감을 주었다. 회색 카나페는 디디에 고메즈 Didier Gomez 디자인으로 치나 Cinna. 쿠션은 트리스탕 외르 Tristan Auer의 나이드 Najd 컬렉션으로 르리에브르 Lelievre. 그 앞에 있는 긴 소파는 해비태트 Habitat. 패턴이 있는 쿠션은 피에르 마리 스튜디오 Pierre Marie Studio. 단색 쿠션 ‘봄볼로니 Bomboloni’는 더 소셜리트 패밀리 The Socialite Family. 그 뒤에 있는 가구는 텔레비전을 가리는 용도로 딱갈나무 각목으로 맞춤 제작했다. 조명은 바게 Bagues.



낮은 테이블 '앵테르스티스 Interstice'는 노에 뒤쇼푸르-로랑스 Noe Duchaufour-Lawrance 디자인으로
치나. 그 위에 있는 꽃병 '프라질 Fragile'은 데보라 루와이오 Deborah Royaux. 볼 '다시 Dashi'는
라 트레조리리 La Tresorerie의 자르 세라미스트 Jars Ceramistes. 패턴이 있는 푸프 '즈베바 Zveva'는 포뮈
에디시옹 Popus Editions. 단색 푸프 '칼리송 Calisson'은 메종 뱅시몽 Masion Bensimon. 돌과 유리로 된
조각 같은 조명은 마리 죄네 Marie Jeunet와 오드리 귀마르 Audrey Guimard가 제작했다. 프레셔스
아트팩트 Precious Artefact 컬렉션으로 단 한 점밖에 없다. 태피스트리 '레벨라시옹 Revelation'은 피에르
고날롱 Pierre Gonalons 디자인으로 팡통 Pinton. 벽 조명은 유 브라스 U Brass, vesoi.com에서 구입.
공작새 박제는 데이롤 Deyrolle. 그림은 안토니오 우리아 몬존 Antonio Uria Monzon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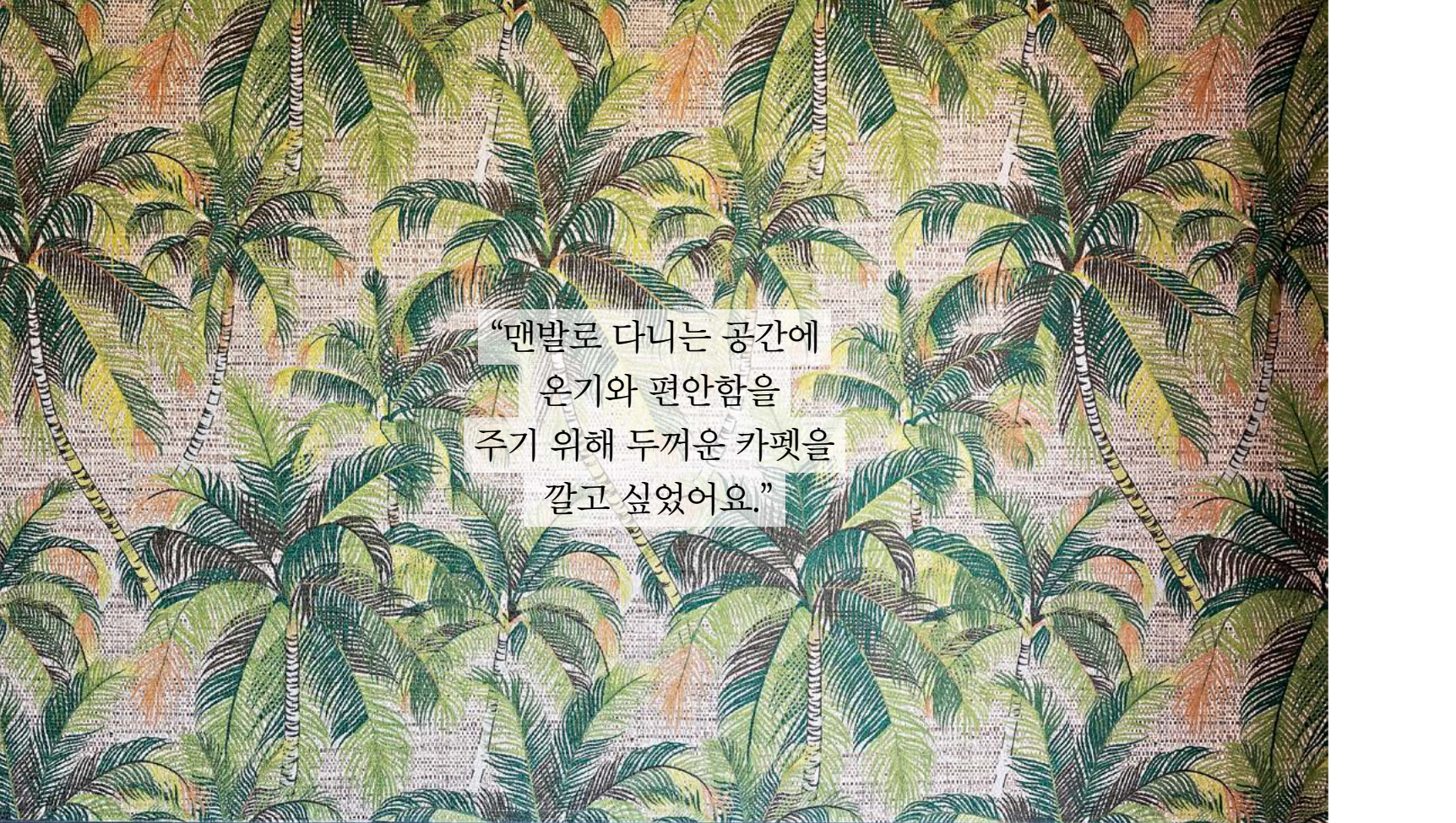




원래 있던 알코브에 맞춤 제작한 벨벳 벤치를 설치해 더욱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대리석 테이블은 니콜라 가조 디자인. 보엠 Boheme의 유리 카라페는 라 트레조르리의 코단스카 Kodanska. 와인잔 '얌 Yam'은 아틀리에 드 티르 Ateliers de Tyr 디자인으로 와우 라 타블르 Waww La Table. 왼쪽에 있는 꽃병 '스윙 Swirl'은 톰 디кс Tom Dixon. 검은색 꽃병은 더콘란샵 The Conran Shop. 줄무늬 꽃병은 매종 사라 라부안 Maison Sarah Lavoine. 펜던트 조명은 카라반 Caravane. 벽에 건 수영장 사진은 슬림 아론스 Slim Aarons의 작품. 다른 작품은 가족 컬렉션.

“알코브 안은 파리
브라스리 같은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석 같은 공간으로 리노베이션한 부엌에는 황동과 대리석, 밝은 색 떡갈나무를 섞어 사용했어요.” 앞에 보이는 볼
'카보스 Cabosse'는 페레올 바벵 Ferreol Babin 디자인으로 레볼 Revol. 안쪽에 있는 카라페는 드 봉 구 De Bon Gout.
센터피스 '카레 Carre'는 메종 마티스 Maison Matisse. 구리 피쳐 '망갈 Mangal'은 어번 네이처 컬처 Urban Nature Culture.
유리잔과 도마는 라 트레조리리 La Tresorerie. 촛대는 매종 사라 라부안.



“맨발로 다니는 공간에
온기와 편안함을
주기 위해 두꺼운 카펫을
깔고 싶었어요.”



“침대 헤드보드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트로피컬 벽지(피에르 프레이 Pierre Frey의 ‘템파 Tempa’) 아래를 무연탄색 나무로 마감해 그래픽적인 대비를 주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침대 옆 테이블은 메이드닷컴. 조명 ‘핼리코 Pimlico’는 포위 에디시옹. 베개 커버는 르 랭주 파르티큘리에 Le Linge Particulier. 침대 커버는 카라반. 단색 쿠션은 데다르 Dedar의 벨벳으로 맞춤 제작했다. 패턴 있는 쿠션 ‘압스트레 Abstrait’는 메종 사라 라부안. 카펫은 생 마클루 Saint Maclou.



“보랏빛 혈관이 드러난 이 대리석을 좋아해요.” 수전은 네베 Neve.
초와 스프레이는 트뤼동 Trudon. 작은 접시는 에르메스 Hermès.

“빛으로 둘러싸인 이
아파트에서는 언제나
석양을 감상해요.”

위층에 설치한 유리 난간은 사무 공간의 안전을 위해 그대로 두었다. 유리 난간으로 아래 거실과 도시의 파노라마 풍경 그리고 마천루를 볼 수 있다. 루이 16세 시대의 책상은 가족 대대로 내려온 것. 의자 '툴립 Tulip'은 놀 Knoll. 푸프 '칼리송 Calisson'은 메종 뱅시몽. 책상 위에 있는 테이블 램프 '아라키 Araki'는 이사무 노구치 Isamu Noguchi 디자인으로 비트라. 북엔드 '스왈'은 톰 딕슨. 꽃병 '유키 Yuki'는 스튜디오 아로이 Studio Arhoj. 꽃병 '칼라드 Calade'는 라 트레조르리의 자르 세라미스트. 전 집주인이 놓고 간 책장 안에 있는 꽃병 '셉탕브르 베르 Septembre Vert'는 크리스티나 셀레스티노 Cristina Celestino 디자인으로 메종 마티스. 태피스트리 '발리스트 Baliste'는 트리프 Triff 갤러리.